

어린이 책의 출판과 국어교육

최 미 숙*

<차례>

- I. 어린이 책 출판의 호황과 반성적 검토의 필요
- II. 어린이 책의 최근 출판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 III. 최초의 인상적 경험으로서의 어린이 독서
- IV. 어린이 책 읽기를 위한 국어교육의 방향
- V. 결론 :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이루어가는 독서 교육을 위하여

I. 어린이 책 출판의 호황과 반성적 검토의 필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던 어린이 책 출판의 호황은 이제 거의 절정에 이른 듯하다. 이제 한국출판의 화두는 바로 어린이 책 출판인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어린이 책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고 있으며 어린이 책 출판물의 양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신문 등의 매스컴에서도 어린이 책 출판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보도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대학 입시에 수학능력 시험과 논술 시험이 도입되자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에 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유년 시절 독서가 대학 입시를 잘 치를 수 있는 기본 능력을 형성한다는 생각에서 어린이 독서 열풍이 몰아친 바 있다. 그런데 그때와 1990년대 후반부터¹⁾ 시

* 영남대학교

1) 출판계에서는 정확하게 1999년부터라고 보고 있다.

작된 어린이 책 읽기 열풍은 그 성격이 사뭇 다른 듯하다. 물론 학부모의 교육열에 기초한 열풍이라는 점에서는 성격이 동일한 듯하지만 이렇듯 출판계의 흐름 자체를 변화시킬 정도의 현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어린이 책 출판시장은 주요 외국 고전의 심각한 중복 출판, 전통적 교양 독서 영역에 속하는 책들의 쇠퇴, 기능적(실용적) 교양서의 상대적인 강세, 역동적 서사물의 퇴조, 깊은 감동 없이 잔재미만 추구하는 TV와 연결된 즉물적 기획상품의 시장 주도, 공포·괴기물과 유머·소화류(笑話類)의 유행 등과 같은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²⁾ 그런데 이제 그러한 흐름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어린이 책 출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지금의 모습을 형성하기까지 출판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1980년대 이후에 어린이 책 출판 시장에서 관행이 되다시피 한 전집류의 방판판매 방식을 뚫고 단행본 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상업주의와 맞서는 일종의 작가주의 출판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³⁾ 그러면서 90년대 후반부터 대형 출판사로 알려진 창작과비평사, 문학과지성사, 문학동네, 민음사(자회사 비룡소) 등이 집중적으로 어린이 책 출판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매출액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기존의 아동전문 출판사를 비롯하여 김영사, 돌베개, 문학수첩, 사계절, 숲, 시공사, 푸른숲 등 많은 출판사들이 아동출판물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의 사정은 우리와 다소 다른 듯하다. 일본의 어린이 책 판매고는 최근 10년간 매상이 20%나 감소해 전체 출판부문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 책을 가정에 직접 판매하는 업계에서 가장 큰 축에 든 회사가 스스로 파산해버리기도 했고, 역사 깊은 책방이나 중견 서점도 도산하곤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⁴⁾ 우리는

2) 한기호, 「독서의 대중화를 통해 우리 출판의 '르네상스'는 가능할까?」, 한국독서학회 제10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독서학회, 2002, p.70.

3) 원종찬, 「한국 아동문학 연구 현황과 과제」, 『문학교육학』 제8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1, p.141.

그러한 현상과 다르다고 자만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 어린이 책 출판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반성적으로 검토해 볼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이런 현상을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긍정성을 좀더 바람직한 것으로, 또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 글은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어린이 책 출판 동향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의 어린이 책 출판 동향을 개관하고,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국어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II. 어린이 책의 최근 출판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발표한 '2002년 출판 통계'⁵⁾에 따르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아동도서로 28.6%의 증가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학습참고서가 15.5%의 증가를 보였다. 특히, 아동도서가 큰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아동도서의 시장이 그만큼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화는 약간 감소한 듯하지만 1999년부터 워낙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터라 그 감소는 미미한 편에 속한다.⁶⁾

4) 히로세 츠네코, 「독서운동의 현황과 전망: 일본의 경우」, 『21세기 어린이 독서문화의 전망』, 어린이도서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0, pp.29-30.

5) <http://www.kpa21.or.kr>

6) 한기호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들어 어린이 책 출판시장의 확대가 가능해진 것은 독서 시장의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른 30-40세대 '부모'들의 힘으로 볼 수 있다. 70, 80년대에 '한 권의 책'의 가치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세대가 출판시장에서 전략적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한 시장이 바로 어린이 책 출판시장이다. 어린이 책 시장은 바로 30-40대가 자기 자식들에게 상상력이 풍부한 책이나 절실한 감동을 담은 책들을 주로 선택해 읽히려는 새로운 열의로 인해 독서 시장이 빠르게 변화한 것이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교육열을 들 수 있다. 교육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꺼이 자신의 삶까지도 바치는 학부모의 교육열이 독서 시장으로 몰리면서 빚어낸 현상이다. 또 출판사의 투자도 큰 몫을 했다. 질적으로 우수한 어린이 책을 출판하고자 했던 출

『문학사상』은 2003년 1월호 특집 「아동출판의 범람과 아동문학 현황」에서 2002년 1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 문학 출판의 시장규모가 3025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시장에 새로 선보인 어린이 문학 책은 모두 4869종으로 2년 전보다 25%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는 출판시장 전체의 성장세를 5배나 앞지른 것이라고 한다.⁷⁾ 그렇다면 과연 어린이 책은 이러한 성장에 걸맞는 질적인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모든 현상에 대하여 언급하기보다는 국어교육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창작 동화의 활발한 출판과 '학습' 동화의 강세

어린이 책 출판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현상 중 하나는, 예전의 전집류 판매에서 벗어나 단행본 중심의 창작 동화 출판이 활발해졌다는 점이며, 이는 소비자의 현실적인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의 창작 역량 축적 및 확대라는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데, 그 시대에 맞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들이 곧 바로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어린이 독자에게 읽히고, 또 다른 동화 작가들이 태어나게 하는 굳건한 토양이 되는 것이다.⁸⁾ 또 이것은 방문 판매원들의 강권에 의한 구매가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구매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독자가 책 소비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사들의 노력, 영상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삼화나 편집이 눈에 띄게 변모한 점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어린이 도서 연구 단체들의 노력이 컸다. 어린이 도서연구회 등 어린이 책의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한기호, 「독서의 대중화를 통해 우리 출판의 '르네상스'는 가능할까?」, 한국독서학회 제10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독서학회, 2002, pp.55~75.

7) 신승철, 「아동출판의 범람과 아동문학 현황」, 『문학사상』 2003년 1월호, 문학사상사.

8) 신수진, 「국내 어린이 책 출판의 흐름」, 『21세기 어린이 독서문화의 전망』, 어린이 도서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0, p.108.

여기에는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우리 창작 동화 읽기 운동’뿐만 아니라 젊은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관심, 상품의 다양성과 품질에 대한 요구수준도 함께 높아지면서 가능했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 권정생, 황선미, 김중미, 김향미 등 동화 작가들의 활발한 작품 활동도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는 원인이 되었다. 단, 몇몇 유명 작가들에 대한 의존이 여전히 높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학습을 위한 이야기 모음집이 ‘동화집’이라는 이름으로 대량으로 출판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어교육뿐만 아니라 수학 학습을 위한, 과학 학습을 위한, 환경 교육을 위한, 때로는 미술 등의 교양을 위한 동화 혹은 책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 형태로 설명하거나 해설하는 책들이 많다. 학습을 위한 이야기 모음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학습의 편의성을 위해 이야기 형태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해설하는 것이 그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동화나 이야기를 제시하고 나서 그에 따른 학습 활동을 제시하는 경우이다.

이기영은 ‘학습을 위한 동화집’의 특징과 문제점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동화’라는 이름만 내세웠지 사실은 동화를 왜곡한다는 점. 둘째, 동화 한 편을 읽고 반드시 문제를 풀든가 도움말 또는 해설로 요약 정리해야 한다는 점. 셋째, 이런 책은 동화도 읽고 공부도 한다는 부모들의 가벼운 현실 심리와, 명분도 있고 돈도 번다는 상업 출판 심리의 이해 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이다.⁹⁾ 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글은 동화라기보다 특정 영역의 공부를 위해 만든 이야기일 뿐이며, 또 모두 교과서 학습 내용을 위해 억지로 만들거나 또는 이미 있는 동화를 각색, 수정하여 만든 학습도구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는 어린이 책이 학습의 수단이나 국어교육의 연장이라

9) 이기영, 「최근 창작 동화 출판 현황」, 『어린이 책 출판 현황과 전망』, 어린이도서연구회 정기 세미나 자료집, 2002, pp.33-39.

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가 깔려 있다. 책을 학습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아이들은 책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주장이 책 읽기를 통한 바람직한 학습의 형태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학습 활동은 무심코 그냥 읽고 지나치는 읽기보다 훨씬 효율적인 것이며, 다만 그 학습의 형태나 내용이 바람직한지 검토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사실 우리가 문제삼아야 할 것은 '맞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문제 풀이'로 일관하는 책이지 학습하는 것 그 자체는 아니다. 지나치게 순수 문학의 관점에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으며, 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학습을 막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어린이 출판물에 지식이나 학습을 위한 이야기 형태의 책이 등장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데, 다만 문학으로서의 '동화' 범주로 묶는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동화'로 묶으면 문학 장르가 되지만 이외는 달리 '이야기' 범주로 넓게 묶는 또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 또 그러한 현상은 최근 독자의 기호가 '이야기'로 기우는 경향을 드러내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사실 최근 '이야기'를 선호하는 경향은 어린이 책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다. "현대의 서사 양식인 소설이 적어도 독자들의 마음에서 '이야기'로 해체되는 현상", "한국 독자들이 소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서점의 한 코너에서 이야기를 찾고 있다는 것, 아니 어쩌면 소설 그 자체에서 이야기의 흔적을 읽고 싶어 한다는 것"¹⁰⁾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출판계의 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¹¹⁾ 문학이 아닌,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모음집 정도의 수준에서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할

10) 장은수, 「현대 문학 독자들의 취향」, 『성인을 위한 문학 생활화의 방법』, 제27회 한국문학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2.

11) 한편, 만화도 이야기성을 가진 것으로 본다면, 어린이 출판물의 이야기화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이야기류의 출판물에 비해 시집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2001년에도 2002년에도 베스트 셀러 20위 권에 시집은 단 한 권도 끼지 못했다. 이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정서적 편식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필요도 있을 것이다.

2) 만화의 비약적인 성장과 그 그늘

2001년과 2002년 어린이 도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 신화」였다. 만화가 베스트 셀러가 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다. 세계 최대의 만화축제인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주빈국으로 초대될 만큼 한국만화는 크게 성장했다. 만화에서의 문화적, 인적, 사업적 성장은 어린이 학습만화 출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먼나라 이웃나라』나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 시리즈는 만화로서는 특이하게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기까지 했으며, 각각 1000만부 이상 판매되었다. 조잡한 글과 그림으로 외면당하던 학습만화가 몇 년 사이에 400억원의 판매시장을 가진 아동출판의 효자로 탈바꿈한 것이다.¹²⁾

만화가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만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끌어 낸 만화의 질적 수준 제고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글과 그림이 결합된 만화가 영상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갔을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으며, 여기에다 일반적으로 만화는 그림과 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글만으로 이루어진 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접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영상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어교육에서 만화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적극 활용한 것 또한 그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다.

책읽기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도 만화책은 잘 읽는다고 한다. 만화책에 대한 가치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지면서 예전처럼 만화를 본다고 꾸중부터 하는 어른은 별로 없어졌다. 예전에는 만화를 보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공부를 위해서도 만화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며 국어 교과서에도 만화를 실고 있다.

12) 「『학습만화』 아동출판계 효자로」, 세계일보 2003년 1월 25일.

그런데 이 대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만화의 장점이 새롭게 평가 받으면서 한편으로 질적으로 검증받지 않은 만화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어린이 만화의 경우, 만화 자체의 문법에 의거한 순수 만화의 창작보다는 정보나 지식 그리고 의미 있는 내용을 손쉽게 전달하는 '수단'에 그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학습 만화의 경우가 그러하다. 서점에 가서 만화책을 둘러 보자. 어른들을 흐뭇하게 하는 만화책이 어찌면 그리도 많은지. 만화로 보는 『명심보감』, 『논어』, 『맹자』, 『과학 만화』 등, 이제는 한국 명작도 만화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 책들의 공통점은 기존에 존재하는, 그것도 이미 검증을 받은 원본을 만화로 다시 만들었다는 것이다. '창작'이 아니라 단지 만화로 옮긴 것으로서 그 만화들이 한국 명작, 논어, 명심보감, 과학적 지식을 손쉽게 전달하면서 과연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사실, 문제는 만화에 대한 가치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지면서 질적 차이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만화 내용의 질이 낮다는 논의를 하면 마치 해묵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양 바라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실적 수준을 의심케 하는 만화가 만화 붐을 타고 무차별적으로 양산되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아이들 흥미를 위해 고전을 현대 상황에 재해석하는 경우, 또 약간의 정보를 전달한다는 '훌륭한' 의도를 지녔다는 이유로, 말풍선에 들어가는 대화가 조악하기 그지없는 경우가 많다. 유치한 말장난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많다. 바로 이런 만화들이 진정한 만화로 거듭나려는 노력에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제 삼국지가 만화로 나오고 게임으로도 나온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이제 만화 영화로 게임으로 나오고 있다. "길고 어려운 그리스 로마 신들의 이름을 엄마들은 헛갈려 하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이름 뿐 아니라 '죽보'까지 술술 읊는다. 아이들이 '포켓몬스터'를 수집하듯 신들의 캐릭터를 수집하는 것을 보면 신기할 정도다."¹³⁾라고 말하는 부모의 얼굴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대견한 듯 바라볼 것이다. 이제 아이

들은 포켓몬, 디지털을 수집하듯이 신들의 캐릭터를 수집하고 있다. 신화를 둘러싼 원래의 맥락은 해체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게임으로 오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TV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면 그것이 만화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태조 왕건 드라마의 영향을 받은 듯한 『태조 왕건』, 야인시대에서 인기를 끌었던 『김두한』이 만화책으로 나왔다. 영상 세대의 특성에 맞는 출판일지는 모르나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가져오는 폐해는 심각해질지도 모른다.

분명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나쁜 만화를 떼어내야 하고, 좋은 만화를 성원해야 하며, 또 좋은 만화를 읽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이 바로 국어교육이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3) 교양이나 지식, 정보의 전달을 강조하는 출판물의 범람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로 단편적인 교양에 속하는 지식이나 과학적인 지식, 정보를 전달하려는 출판물¹⁴⁾이 넘쳐나고 있으며 베스트 셀러에 오르는 경우도 많다. 이 책들은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궁금증이나 호기심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런 책에서 주로 제시하고 있는 물음은 다음과 같다.

모기에 물리면 왜 가려울까?,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은 왜 하얗게 변할까?, 방귀를 참고 참으면 어떻게 될까?(이상 『초등학생이 가장 궁금해하는 100가지』) / 바다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바다 밑은 어떻게 생겼을까?, 바닷물은 왜 짭까?(이상 『초등과학학습만화 WHY? 바다』) / 바람은 왜 불까?, 구름은 얼마나 높이 떠 있을까?, 태양계 밖으로 날아갈 미래의 로켓은?, 사람은 지구가 도는 걸 왜 느끼지 못할까?, 지구의 얼음이 모두 녹으면 바닷물은 어떻게 될까?(『알쏭달

13) 「TV도... 게임도... 그리스 로마신화 열풍」, 『동아일보』, 2003년 1월 29일.

14)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이 가장 궁금해하는 100가지』(우리기획 엮음, 예림당), 『초등과학학습만화 WHY? 바다』(이관용, 예림당), 『2학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뭐일까?』(백명식, 파랑새어린이), 『알쏭달쏭 과학상식 : 지구·우주 편』(우리 기획, 예림당), 『단숨에 깨치는 과학 상식』(글·김석호, 그림·김석천, 웅진닷컴) 등.

송 과학 상식: 지구·우주 편』 등

이런 책들은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느낄 수 있거나 혹은 너무 일상적이어서 호기심조차 느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 그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인 지식나 과학적 지식은 매우 중요하며 또 필요하다. 이런 책들을 통해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한다는 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살아있는 지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어린이 서적은 궁금증이나 호기심에 대한 해명이 표면적이거나 사실을 나열하는 수준, 단편적인 과학 지식의 나열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로는 답이 너무 완결적이라서 모든 것을 해결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하는 적절한 방식은 아니다. 과학적 탐구심은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그 호기심을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시하며, 하나의 결론은 또 다른 호기심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다른 측면으로 끊임없이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지식을 활용하여 예측하거나 설명하고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되며, 주어진 상황이나 현상 또는 사건에 대해 설명하거나 예측함으로써 평가하는 활동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출판된 책에서는 이런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내용을 일반화하고 추론하거나 결론을 짓는 과학 활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경우”¹⁵⁾라는 비판이 타당성이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교양이나 지식, 정보의 전달을 강조하는 책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식의 무차별적인 살포가 아니라 지식을 구조화하고 체계

15) 이성실, 「우리 창작 과학책 출판 현황」, 『어린이 책 출판 현황과 전망』, 어린이도서연구회 정기 세미나 자료집, 2002, p.73.

에 따라 배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지식의 경우, 그것은 탐구 능력을 길러 줄 수 있어야 하며 과학적 탐구 능력이란 과학자만이 지녀야 할 능력이 아니라 일상인이라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할 능력이다. 일상인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능력 또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추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의 습득'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책의 경향을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성인 작품의 어린이 작품化 현상

중·고등학생부터 읽기 시작하여 어른들이 주로 읽던 한국 근대 단편 소설이 어린이 책으로 출판되고 있다. 성인 작품이 청소년 혹은 어린이를 위한 책으로 기획, 편집되어 새롭게 출판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을 크게 넣고 글자를 키워 동화집처럼 편집하여 고학년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백꽃』, 『운수 좋은 날』, 『어린이를 위한 병어리 삼룡이』, 『B사감과 러브레터』, 『어린이를 위한 운현궁의 봄』, 『어린이를 위한 흙』, 『어린이를 위한 메밀꽃 필 무렵』, 『어린이를 위한 연탄길』 등의 작품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움직임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성인용 작품에 컬러 삽화와 낱말 풀이, 해설만 덧붙이면 어린이용이 될 수 있다는 사고가 저변에 깔려있다. 그리고 어린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해버리면 된다는 사고 또한 깔려있다. 사실 이런 출판물은 대학 입시와 상업성을 결합시킨 결과물로, 어린이 책 출판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가세하려는 상업적 움직임의 결과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어떤 근거로 『흙』, 『운현궁의 봄』 등이 갑자기 어린이용 작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영상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한국 현대 문학의 정수를 좀더 일찍 맛보게 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명작 중심의 작품 선정, 산뜻한 원색 컬러 삽화에 깔끔한 편집, 큼직큼직한 글씨, 친절한 낱말 풀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책의 겉 표지에 “어른들이 읽고 감동한 오늘의 한국명작, 명저들을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도록 꾸몄습니다.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명작 명저를 미리 읽히세요.”라는 글이 실려 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러한 기획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하나는 부모가 이미 읽은 책을 어린이와 함께 읽음으로써 부모와 자식간의 세대간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다른 하나는 아이들에게 한국 명작을 ‘미리’ 읽힌다는 점이다. 우선 문학 작품을 읽고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대화를 나눈다는 설정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국 명작을 미리 읽히자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명작을 읽으면서 대학입시를 준비한다는 안도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 이미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은 작품을 아이들이 읽게 함으로써 명작을 읽고 있다는 안도감을 어린이 본인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더군다나 이런 류의 책 대부분이 논술이나 수능 대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데서 그러하다.

그러나 더 문제되는 것은 한국 명작을 어린이 수준에 맞추어 수정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의미가 변하거나 본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를 위한 명작류를 읽다 보면, 성인이 읽던 작품을 어린이가 읽을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어휘와 문장을 수정하거나, 내용을 대폭 삭제하거나, 심지어 내용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책 중에 나도향의 「병어리 삼룡이」를 대표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인용문에서 (가)¹⁶⁾는 전집에 실린 원본이며, (나)¹⁷⁾는 어린이를 위해 수정한 부분이다.

16) 주종연·김상태·유남옥 엮음, 『나도향 전집 上』, 집문당, 1988.

17) 송재찬 엮음, 『어린이를 위한 병어리 삼룡이』, 문학세계사, 2000.

- (가) 그러나 정욕을 가진 사람인 병어리도 그의 피가 차디칠 리는 없었다.
 (나) 그러나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남자이기 때문에 그의 치가
 차디칠 리는 없었다.

- (가) 보기에도 황홀하고 건드리기도 황송할 만큼 숭고한 여자를 그렇게 학대한
 다는 것은 너무나 세상에 있지 못할 일이다.
 (나) 보기에도 황홀하고 건드리기도 황송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를 학대하
 니.....

어린이 수준에 맞게 개작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상당히 공들여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우선 어린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어린이 정서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정을 했다. '죄신을 삼는다' 등 요즘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아예 없애버린 경우도 있으며, 문맥상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에서는 없는 문장을 새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이런 노력은 어린이들의 가독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위 인용문에서는 '정욕'을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수정했고, '숭고한 여자'를 '아름다운 여자'로 수정했다. 그런데 후자는 아무래도 맥락상 맞지 않다. 숭고함이란 '아름다움'과는 다른 미적 범주로서, '범접할 수 없는 대상을 접했을 때 느끼는 미적 체험'을 의미한다. 어휘 하나가 바뀐 것이기는 하지만 삼룡이가 주인 아씨를 대하는 마음이나 맥락에 대한 이해가 바뀔 수도 있는 경우다. 다음은 좀 더 심각한 경우다.

[1]

- (가) 그 집에는 삼룡이라는 병어리 하인 하나가 있으니 키가 몹시 크지 못하여 땅딸보이고 고개가 달라붙어 몸뚱이에 대강이를 갖다가 붙인 것 같다. 거기다가 얼굴이 몹시 얇고 입이 크다. 머리는 전에 새꼬랑지같은 것을 주인의 명령으로 꺾었으나 불땀송이 모양으로 언제든지 푸하고 일어선다. 그래 걸어 다니는 것을 보면 마치 움두꺼비가 서서 다니는 것 같이 술차 보이고 더디어 보인다.(p.221)

- (나) 그 집에 삼룡이라는 병어리 하인이 있었는데 키는 작아 땅딸보였고 목이 짧아 뭉뚱이에 머리를 갖다 붙인 것 같았다. 거기다가 얼굴은 옅은 곰보요, 입이 컸다. 새꼬리처럼 보기 싫게 자란 머리를 주인의 명령으로 깎기는 깎았으나 퍼런 밤송이 모양이었다.(pp.10-11)

[2]

- (가) 그러나 나갈 곳이 없었다. 그는 하는 수없이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는 비로소 자기의 몸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즐거운 쾌감을 자기의 가슴에 느끼는 것을 알았다. 색시를 자기 가슴에 안았을 때 그는 이제 처음으로 살아난 듯하였다. 그는 자기의 목숨이 다한 줄 알았을 때, 그 색시를 자기 가슴에 힘껏 껴안았다가 다시 그를 데리고 볼 가운데를 헤치고 바깥으로 나온 뒤에 색시를 내려 놓을 때에는 그는 벌써 목숨이 끊어진 듯였다. 집은 모조리 타고 병어리는 색시 무릎에 누워 있었다.
그의 울분은 그 불과 함께 사라졌을지!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웃음이 그의 입 가장자리에 얹게 나타났을 뿐이다.(p.232)
- (나) 그러나 사방이 모두 불길이어서 나갈 곳이 없었다. 그는 하는 수없이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는 비로소 자기의 몸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즐거움이 자기의 가슴 속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주인 아씨를 가슴에 안았을 때 그는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듯 기뻐했다.
집은 모조리 타고 병어리와 주인 아씨도 목숨을 잃었다. 병어리는 주인 아씨를 죽을 때까지 무릎에 누고 있었다.
그의 울분이 그 불과 함께 사라졌을까?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웃음만이 불에 타지 않고 그의 입가에 얹게 나타나 있었다.(pp.28-29)

다른 책도 마찬가지로인데, 수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줄거리 전개와 긴밀한 관련을 맺지 않는다고 판단한 묘사 부분을 생략하거나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작품에서 묘사는 인물의 성격을 결정적으로 드러내거나 사건 전개의 중요한 복선 구실을 하는 경우가 많다. [1]의 (가)에 등장하는 묘사는 삼룡이가 작은 키에 단단하고 불밤송이 모양으로 푸하고 일어서는 머리를 한, 마치 움두꺼비 같은 이미지를 지닌 인물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그가 거친 노동에 단련되어 있으며, 원

초적인 힘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 암시는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삼룡이만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육체적 조건을 갖춘 존재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설명해 준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나)에서는 “퍼런 밤송이 모양이었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묘사하고 있는 바 이는 삼룡이라는 인물의 성격 제시와 추후 사건 전개에서의 설득력을 상실하는 경우다.

(2)는 마지막 결말 부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작품 수정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중요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원본 내용을 바꾸어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원본에서 병어리는 색시를 불구덩이에서 구출한 후 목숨이 끊어지는데, 색시 무릎에 누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데 약간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씨가 죽었다는 직접적인 서술은 없음에도 (나)에서는 주인 아씨가 죽었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가)에서는 삼룡이의 행복한 죽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데 반해, (나)에서는 삼룡이와 아씨가 같이 죽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셈이 되어 버렸다.

질적으로 낮은 엉터리 책들보다는 이런 책들이 훨씬 나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어린이용으로 수정하기 위해 들인 노력을 폄하할 생각도 없다. 다만, 엄청나게 공을 들인 경우도 이러한데, 별다른 고민 없이 수정한 경우라면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공을 들여 어린이에 맞게 수정한다 해도 위에서 논의한 오류는 어린이 수준에 맞게 어려운 어휘를 수정하고 표현을 다듬는 과정, 맥락이 모호해서 어린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쉽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근본적인 방향은 성인용 작품을 어린이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고민하기보다는 어린이 발달 단계에 맞는, 어린이 명작의 창작에 매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4) 세계 명작의 완역 출판과 번역 도서의 강세

외국 명작 동화가 원전 번역을 통해 새롭게 출판되고 있다. 고전으로

알려진 세계명작이 여러 출판사에서 완역되어 나온 것이다. 기존의 이중 번역이나 짜깁기식 번역 그리고 일본 번역물로부터 벗어나, 원전을 직접 번역하여 '완역'이라는 문구를 달고 깔끔한 새 편집과 장정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어린이를 위한 외국 도서 출판이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수준이 높아진 독자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발표된 어린이 외국 도서가 물밀 듯이 밀려오고 있다. 2002년 출판 통계에서도 20위권에 드는 책의 약 50%가 번역 도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도 외국 도서의 번역 과정에서 여전히 원본을 발췌하거나 수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작품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는 경우도 많다. 다음은 그 한 예로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행복한 왕자」를 완역한 경우 (가)¹⁸⁾와 편역한 경우 (나)¹⁹⁾를 들어 논의하고자 한다.

(가)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하룻밤만 더 나하고 지내지 않겠나?”하고 왕자가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제비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이집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이면 친구들은 나일강에서 두 번째로 큰 폭포까지 올라갈 거예요. 갈대 숲 속에는 하마가 비스듬히 누워 있고, 큰 화강암 위에는 뱀뱀이라는 신이 앉아 있지요. 뱀뱀 신은 밤새도록 별을 보다가 새벽별이 비치면 기쁜 듯이 소리를 한 번 지르고 이내 잠잠해진답니다. 낮이 되면 금빛 사자가 물을 마시러 물가로 내려오는데 두 눈은 푸른 에메랄드같이 빛나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큰 폭포 소리보다도 더 우렁차지요.”

(나) “제비야, 하룻밤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나?”

“친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은 지금쯤 폭포 위를 날아가고 있을 거예요.”

18) 오스카 와일드, 『행복한 왕자』, 이지민 역, 창작과비평사, 2001.

19) 오스카 와일드, 『행복한 왕자』, 『아름다운 단편 동화』, 원유순 엮음, 삼성출판사, 2001.

(나)의 경우에도 공들여 수정한 경우다. 되도록 원문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수정을 한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분량을 줄이면서 생략한 내용이 많아졌다는 점이며, 그 생략된 내용이 작품 이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특히 (나)에서는 사건 전개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여겼는지 왕자와 제비의 대화 부분을 대폭 생략했다. 그런데 그 생략된 부분은 주로 제비가 자신이 가고자 하는 이집트를 환상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다. 독자들은 그 묘사를 통해 제비가 이집트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와 제비가 꿈꾸는 세계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나)에서는 이집트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바뀌어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가)에서 길게 서술한, 제비가 가고자 하는 세계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는 부분이 사라져 버렸다. 제비가 가고 싶어하는 세계, 즉 제비가 꿈꾸는 세계에 대한 묘사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곳은 제비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간, 즉 속물적인 인간과 불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과는 매우 대조되는 곳으로서 따뜻하고 아름다우며, 신비롭고 빛나는 곳이다. 그런 공간에 대한 열망을 가진 제비가 왕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착한 일을 하다가 결국 왕자의 동상 옆에 떨어져 죽는다. 속물적인 시장과 시의원, 대학의 미술교수는 그 착한 왕자와 제비의 죽음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흉하다고만 하지만 오직 하느님만이 그들이 제일 귀중한 존재임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제비가 지향했던, 가고자 했던 세계에 대한 묘사가 사라짐으로써²⁰⁾ 제비가 자신의 열망보다 왕자의 따뜻한 마음을 사랑했던 그 갈등이 사라져버렸으며, 그 아름다운 곳을 포기하고 결국 추운 왕자의 곁을 선택하는 데서 오는 감동의 깊이를 알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외국 명작을 축약해서 출판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성인 세대의 대부분은 일본 번역본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작품을 읽은 세대이며, 그것도 짧게 축약된 작품을 읽은 세대이다. 그런데 이런

20) (나)에서, 제비가 꿈꾸는 세계에 대한 묘사는 이 부분 이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생략되거나 축소되어 있다.

출판물은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그 작품이 원래 지니고 있는 입체성과 문제 의식을 무화시켜 버리거나 변질시켜 버린다. 이런 상태에서 원본을 완벽한 작품과 축소해서 번역한 작품을 읽는 감동이 다를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Ⅲ. 최초의 인상적 경험으로서의 어린이 독서

성장하는 어린이 시기는 정서적인 반응 방식, 가치관, 사고 방식 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에 읽은 문학 작품은 평생 동안 지니게 될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어린이 출판물은 어린이 시기의 출판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시기에 읽는 다양한 책은 한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평생 중요한 배경 지식으로 작용하여 한 인간의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이나 동일한 사회적 사건을 접할지라도 사람들마다 그것을 해석하거나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데, 이것은 유년기의 경험 수용 결과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의식은 구조적으로 말해서, 특정한 내적 '변증법'에 의해서 특징지워진다.(한 인간의-인용자) 의식 형성에 있어서 '최초의 인상들', '어린 시절의 경험들'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경험들은 그 뒤를 따르는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층'들의 경험을 규정한다. 반대로 한 특정 경험의 전기적 중요성을 평가할 때, 그것이 어린 시절의 결정적 경험인지 혹은 다른 근본적이고 보다 이른 인상들에 중첩되는 경험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의 인상들은 자연스러운 세계관으로 유착되는 경향이 있다. 나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험들은 그러한 원초적인 틀로부터 그 의미를 부여받는다.²¹⁾(강조 인용자)

이 인용문은 한 인간의 의식 형성에 있어서 유년기의 경험이 얼마나

21) K. Mannheim,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ed. P. Kecskemeti, Routledge & Kegan Paul, 1997. pp.298-299.

중요한지 잘 드러내주고 있다. 한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인간의 의식은 시간차를 두고 겪는 여러 경험들이 함께 쌓이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겪는 최초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 그 이후의 경험은 그 최초의 경험에 의해 규정된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내적 변증법에 있어 어린 시절의 독서가 갖는 의미는 클 것이다.

예전에는 한 인간의 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경험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직접 체험한 것이 바로 강렬하고도 원초적 인상을 제공했고, 위의 인용문대로라면 그 인상은 한 인간의 의식을 결정짓는 틀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어린이의 성장을 보면, 그 경험 방식이 많이 다변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매체를 중시하는 세대의 등장을 들 수 있다. 그 세대가 갖는 최초의 인상, 어린 시절의 경험은 바로 영화, 만화, 인터넷, 게임 등 영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만화 영화에 나오는 로봇을, 인형을 사서 가지고 논다. 팽이는 또 어떠한가? 예전처럼 팽이에 줄을 감아 던져 돌리는 팽이 놀이는 하지 않는다. 이미 '탑블레이드'가 팽이 시장을 석권한 지 오래다. 탑블레이드를 통해 아이들은 만화 영화에서 보는 게임과 유사한 게임을 실제로 할 수 있으며, 주인공인 '지우'와 함께 "셋, 둘, 하나, 고우 샷!"을 동시에 외치며 팽이를 돌린다. '지우'의 친구인 '교수'(이 친구는 새로운 탑블레이드를 계속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가 탑블레이드의 공격력과 지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팽이를 만들어내면 곧바로 상점에 달려가 그것을 구매함으로써 만화 영화와의 동시성을 획득한다. 만화 영화를 활용한 상품 시장 덕택에 만화가 곧 현실이 되어버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TV에서 '지우'와 '교수'가 사라지는 순간 아이들의 손에서 탑블레이드도 사라진다. 딱지도 마찬가지다. 종이를 접어서 만든 딱지는 아예 딱지 취급도 받지 못한다. '장군의 아들' 딱지, '야인시대' 딱지, '디아블로' 딱지, '매직키드 마수리' 딱지 등 TV 드라마나 게임의 한 장면이 컬러로 화려하게 인쇄된, 정사각형으로 정교하게 이미 만들어진 딱지를 사서 딱지치기를 즐긴다.

이제 그 TV 프로그램들이 기억에서 멀어지면 그 딱지 또한 생명력을 잃을 것이다. 이렇듯 영상과 현실의 경계가 해체되면서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경험이 되어 버렸다. 그 뿐인가? 그 캐릭터들은 아이들의 옷, 가방, 신발, 공책, 크레파스, 연필 등 사방에서 살아 움직이며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

어린이 세대의 경험은 이제 기성 세대와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되었다. 어린이 세대의 경험 방식과 경로가 이미 이전 세대와 달라져버린 것이다.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것에는 고전을 좀더 쉽게 접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요구도 있었겠지만 만화에 대한 영상 세대의 익숙함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나 '해리 포터 열풍'은 출판 문화의 역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행으로 잠시 시장을 주도하겠지만 일시적 현상으로 지나갈 것」²²⁾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다.

이 최초의 경험에서 어린 시절의 독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사실, 책은 우리 아이들이 '자연'의 층위에서 '문화'의 층위로 이르게 하는 중요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 만화 영화, 게임 등이 TV 전파, 인터넷을 타고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통로라면, 독서는 학교, 가정, 사회가 '의식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통로다. 영상 매체를 통한 경험이 독서를 통한 경험과 함께 이루어지며 상호작용할 때, '무차별적인 살포'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최초의 인상들'이 될 수 있으며, '문화'의 층위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독서는 그 통로의 모양을 바꾸거나, 크기를 넓혀주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경험 방식의 변화 또한 중요하다. 앞에서 논의했듯, 예전에는 직접적인 경험을 중시했지만, 이제는 책을 통한 간접 경험 없이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세대의 경험 방식을 인정하면서도 그 통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자연'에서 '문화' 층위로의 진입은 바람직한 것이 될 것

22) 조윤희, 「어린이 책 출판 현황과 전망」, 『어린이 책 출판 현황과 전망』, 어린이도서연구회 정기 세미나 자료집, 2002, p.23.

이다. 그 진입의 방식을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IV. 어린이 책 읽기를 위한 국어교육의 방향

어린이들에게 책을 사서 안겨 주기만 하면 모든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독서의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 독서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좋은 책을 선정해서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 독서교육이 그 임무를 다 한 것은 아니다. 어린이가 그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읽는지, 그리고 읽은 후에 어떤 생각 혹은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어린이 책 읽기가 갖는 의미와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를 위해 국어 교육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1. 원본 중심의 작품 선정 및 수정

출판의 힘은 크다.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책은 여러 경로를 거쳐 우리 아이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어른이 책을 사주지 않아도 다양한 경로를 거쳐 학교 도서관에, 도서 대여점에, 방문 대여점에 들어가게 마련이다. 결국 구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읽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잘못된 출판물은 곧바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역으로 국어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어린이 책 출판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문학 작품은 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의 수용과 창작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또 국어 능력신장을 위한 중요한 활동 자료로 쓰인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접하게 되는 문학 작품을 원본 중심으로 선정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원본 중심의 제재 선정 및 수정이란 되도록 원본을 실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수정해야 하는 경우란 예를 들면 맞춤법이 나 띄어쓰기의 차원 정도에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국어 교과서는 원본을 축약하거나 생략하거나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문학 작품을 포함하여 단원의 학습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학습 활동 제재를 선정하고, 바람직한 가치 요소가 다양하게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²³⁾라고 제시하고 있다. 단원 학습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제재를 선정하다 보니 작품 선정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좋은 작품을 선정했다 할지라도, 현재 국어교과서는 차시별로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 원문을 불가피하게 축약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

어려서부터 원본을 수정하고 발췌한 글을 읽다보면 원본이 주는 감동이나 깨달음을 제대로 경험하기 어려워지며, 원문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젖어버리기 쉽다. 잘게 쪼개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그대로 실으면서 맞춤법이나 정서법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 정도만 하면 될 것이다. 실제,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읽기』 교과서의 『바위 나리와 아기별』이나 5학년 1학기 『읽기』 교과서에 실린 김동인의 「무지개」는 되도록 원문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실었으며, 정서법에 맞게 수정하는 정도로만 수정을 해서 실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를 수 있다. 저학년의 읽기 능력을 고려하여 글의 길이를 짧게 하다 보니 원본을 축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그런 경우에도 아예 처음부터 짧은 글을 싣든지, 한 편의 글을 차시별로 나누어 싣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3학년 1학기 『읽기』 교과서는 『바위 나리와 아기별』을 1차시와 2, 3차시로 나누어 싣기도 했다.

2. 위계화와 연계성을 고려한 독서 교육 설계의 필요성

앞에서 논의한 어린이 책 출판의 문제를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위계화와 연계성을 고려한 독서 교육에서 찾을 수

23) 교육부, 「집필상의 유의점(초등학교 3, 4학년)」, 1998, p.7.

있을 것이다. 어린이 책 출판에서 위계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성인용 작품을 어린이용으로 재구성하여 출판하는 것이다. 위계를 고려하여 작품을 선정한다는 것은 해당 학생의 정서와 인지 발달을 고려하여 적절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지 성인을 위한 책을 수정하거나 편집을 달리 하여 어린이에게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화의 경우에도 연계성을 고려한 국어교육 연구가 필요하다. 만화가 ‘그림과 글’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글’로 넘어갈 수 있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닌 매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과도기를 어떤 방식으로 거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어교육적 논의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아이들이 만화를 읽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책을 읽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화와 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만화에서 글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 그 과정을 지도하기 위한 전략, 예를 들면 만화의 말풍선에 등장하는 대화의 종류와 유형을 분석하고, 그런 대화를 읽던 아이들이 문자만으로 된 글을 읽기 시작할 때에는 어떤 종류의 글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연구, 만화의 그림과 글에 삽화로 등장하는 그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교과서 삽화는 어떤 방식으로 그리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화 자체의 문법을 중심으로 한 만화 읽기 혹은 만화로 표현하기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앞에서 만화가 정보나 지식의 주된 전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국어 교육도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원리나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만화를 활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설을 만화로 그려 제시하거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만화라는 장르에 대한 교육을 통해 만화 자체를 제대로 읽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화라는 매체의 표현 방식과 이해 방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교육을 한다면, 학생들 스스로 좋은 만화와 나쁜 만화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를 수 있을 것이다.

3. 세부적 기능 위주의 교육에서 문학의 즐거움을 살리는 교육으로

책을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어교육의 역할은 크다. 독서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의 국어 교육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국어 교과서를 통해 아이들은 문학 감상의 기초, 책 읽기의 기초를 '원리 학습'의 형태로 배우고 있다. 그런데 이 원리 학습이 대부분 세부적인 기능 교육에 치우쳐 있어 '전체적인 사고 과정'이나 '전체적인 감상'이 빠져버린 경우가 많다. 물론 전체에 도달하기 위해 세부를 알거나 학습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는 세부만이 제시되고 있을 뿐 그 전체에 도달하는 과정에 대한 항목을 생략한 것이 문제다. 세부적인 기능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작품이나 글을 '통째로' 읽는 습관을 기르기는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흉내내는 말이 주는 느낌을 살려 글 읽기(1-1), 인물의 말과 행동에 어울리게 이야기를 읽어 보기(2-1), 인물의 성격을 살리면서 이야기 읽기(3-1) 등을 배우기는 하지만 한 편을 글이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그런 기능들을 하나로 결합시키면서 감동적으로 혹은 전체로 읽어내는 교육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는 목표 중심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에 따른 활동을 주로 하게 되어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작품 자체가 학습 목표 도달을 위해 선정된 작품이기는 하지만, 한 편의 작품을 읽고 나서 그 작품의 감상과 관련된 활동을 첨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학 작품의 경우, 내용 학습과 목표 학습을 하는데, 내용 학습은 대부분 세부적인 내용 확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세부 내용 확인에서 더 나아가 문학적인 감동이나 즐거움을 살리는 국어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면, 1-2학기 읽기 교과서에 권정생의 「강아지똥」

이 나오는데, 이 작품은 “일상 생활에서는 쓸모 없는 것, 더러운 것이란 의미로 쓰이나, 작품 속에서는 각기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 의미를 달리 실현”²⁴⁾하고 있다. 단원 목표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이렇듯 그 작품을 통해 감상해야 할 것에 대한 활동도 활동도 해야 한다.

또 문학을 즐길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의 표현을 중시하는 국어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책을 읽은 후 자기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게 하되,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주로 자신의 생각을 단편적으로라도 말하게 하는 토의나 토론 활동을, 초등학교 고학년 부터는 글로 쓰는 활동을 강조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책을 읽고 표현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중심 인물 동일시에 의한 동화(同化)적 읽기 활동, 거리두기에 의한 비판적 읽기 활동, 세부적인 활동으로 는 상상하여 이어쓰기, 주인공이나 상황의 성격을 바꾸어 쓰기,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에게 편지쓰기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독서 교육 방법은 학년을 달리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교육을 통해 좋은 글을 읽는 방법,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을 학습하여 학생 스스로 읽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을 말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작 느낀 점을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말해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이루어가는 독서 교육을 위하여

“출판이 양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2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듯”²⁵⁾하다는 뼈아픈 지적을 되새겨볼 때가 되었다. 독서란 개

24) 김상욱, 「문학 교육의 본질과 어린이 문학」,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문학교육』, 어린이도서연구회 저기 세미나 자료집, 2001 p.47.

25) 조윤희, 「어린이 책 출판 현황과 전망」, 『어린이 책 출판 현황과 전망』, 사단법인

인적인 성장을 위한 개인적인 작업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동시에 구축해야 하는 국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 책 출판은 출판사의 몫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학교 교육이, 가정에서의 관심이, 사회적 움직임이 출판사를 움직이고 독자를 움직인다. 여기에서 국어교육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한 인간의 성장을 '성장의 관점'에서 체계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 교육이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 책이 만화로, 게임으로 변신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문화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독서 문화를 진작시키는 데 있어서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어린이 문학 작품을 연극이나 창작 무용으로 공연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백석의 시 「개구리네 한술밥」이 연극으로 상연되고, 「바위나리와 아기별」이 창작 무용으로 공연되기도 했다. 이러한 모색이야말로 어린이 독서 문화의 진작을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만수, *동화·우화를 고쳐 쓰기*, 『문학과 교육』 제7호, 문학과교육연구회, 1999.
- 김상욱, 「문학 교육의 본질과 어린이 문학」,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육』, 어린이도서연구회 정기 세미나 자료집, 2001.
- 박상재, 『한국 창작동화의 환상성 연구』, 집문당, 1998.
- 서정오, 『옛이야기 들려주기』, 보리, 1995.
- 신수진, 「국내 어린이 책 출판의 흐름」, 『21세기 어린이 독서문화의 전망』, 어린이도서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0.
- 신승철, 「아동출판의 범람과 아동문학 현황」, 『문학사상』 2003년 1월호, 문학사상사.

- 엄혜숙, 「어른의 문학생활화와 어린이 문학」, 『문학교육학』 제10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2.
- 원종찬, 「한국 아동문학 연구 현황과 과제」, 『문학교육학』 제8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1.
- 유소영, 아동문학 어떻게 이용할까,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1.
- 이기영, 「최근 창작 동화 출판 현황」, 『어린이 책 출판 현황과 전망』, 어린이도서 연구회 정기 세미나 자료집, 2002.
- 이재복, 『우리 동화 바로 알기』, 한길사, 1995.
- 이재철 편, 한국현대아동문학 작가작품론, 집문당, 1997.
- 이주영, 『어린이 책을 읽는 어른』, 웅진출판, 1999.
- 장은수, 현대 문학 독자들의 취향, 『성인을 위한 문학 생활화의 방법』, 제27회 한국문학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2.
- 조월례, 「어린이 책 출판 현황과 전망」, 『어린이 책 출판 현황과 전망』, 어린이도서 연구회 정기 세미나 자료집, 2002.
- 한기호, 「독서의 대중화를 통해 우리 출판의 '르네상스'는 가능할까?」, 한국독서학회 제10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독서학회, 2002.
- 현완상, 「한국 사회의 독서 현상에 대한 조명과 해석」, 한국독서학회 제10회 학술발표대회, 한국독서학회, 2002.
- 황정현, 초등학교 문학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육』, 어린이도서연구회 정기 세미나 자료집, 2001.
- J.J. 루소, 『에밀』, 정봉구 역, 범우사, 1992.
- Karl Mannheim,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ed. P. Kecskemeti, Routledge & Kegan Paul, 1997. pp.298-299.

〈초록〉

어린이 책의 출판과 국어교육

최 미 숙

이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 책 출판의 동향을 검토하고,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린이 책의 최근 출판 동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창작 동화의 활발한 출판과 학습 동화의 강세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화가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으며 그에 따라 질적으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만화 또한 양산되는 폐해를 보이기도 했다. 교양이나 지식, 정보의 전달을 강조하는 출판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쏟아지고 있으며, 성인 작품이 수정 단계를 거쳐 어린이 작품으로 등장하는 현상도 중요한 경향이다. 단, 성인 작품을 어린이 작품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좀더 바람직한 어린이 명작의 창작에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계 명작의 경우에도 부분 발췌하여 번역 출간하기보다는 완역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최근 세계 명작이 완역되어 출판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 시기에 읽은 문학 작품은 평생동안 지니게 될 가치관이나 사고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어린이 독서라는 인간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게 될 '최초의 인상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어린이 책 읽기 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원본(원 텍스트) 중심으로 작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린이 성장 단계를 고려한, 위계화와 연계성을 고려한 독서 교육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부적 기능 위주의 교육에서 문학의 즐거움을 살리는 교육을 독서 교육의 방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학교, 가정, 사회가 모두 함께 바람직한 독서 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어린이 책, 어린이 책의 출판, 창작 동화, 최초의 인상적 경험, 독서교육

〈Abstract〉

**Publication of the Childrens Books and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Choi, Mee-Sook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trend of the childrens books in Korea and looks out for its alternatives for the children from an educational point of 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ently published childrens book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domination of the creative fairy stories and study-books over the childrens book market draws our attention. Secondly, the cartoon genre in the childrens books shows its rapid growth and, as a consequence, a lot of less or unqualified cartoon books are over-published. Lastly, a lot of childrens books are produced as a revised or abridged form along with other childrens books for the educational information. Regarding the last tendency, it is more desirable to write the originally children-targeted books rather than merely to summarize the previously published stories for the adults. It is also more advisable to make a complete translation of the worlds best pieces into Korean rather than to extract several separate parts from the whole story. Nowadays we have gradually a lot of fully translated books of world best stories.

The books we have read in childhood can give very deep influences on the way of developing our thoughts and ideas.

For this reason, it is said that the reading experience in childhood determines childrens future as it is a first impressive experience to them. From this point of view, I suggest several alternatives on how to guide the childrens books from an educational sense.

At first, it is essential to select the books with priority to their original texts and then to make good reading plans for the children with due regard to their ages and growth steps. Also it is necessary to avert our ideas from a functional emphasis on the reading education to the way to let children appreciate their own delight toward literature. A well-organized and intimate cooperation of school, household and society will be required for a better result on this matter.

【key words】 the childrens books, publication of the childrens Books, creative fairy stories, a first impressive experience, reading education